



삼상25:23-31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누구인가?(삼상 25장)

**첫째, 일의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18)**

그녀는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된 대로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준비하여 앞서 보내고, 자신도 곧 뒤따라 가다가 다윗의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25:23, “다윗의 발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주’로 호칭함), 그녀의 길고도, 지혜롭고도, 설득력 있는 언변을 토한다(25:23~31). 그녀의 스피치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문제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사람.(24)**

문제를 남자에서 여자에게로 갈아타게 합니다. 당시만해도 남존 여비의 대표적인 시대와 상황이다. 여자가 한일을 남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어바하는 것이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혜이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다(25:25). 이 한마디로 사실 나발이라는 자는 이 사건에서 이미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제는 나발과 다윗이 아닌 아비가일과 다윗의 문제임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나중(후일)을 기약하는 사람.(26)**

26절의 내용이 31절에 더 잘 보충해 주고 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지금의 일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의롭게 판단이 되어서 모욕과 실추된 명예를 되 찾고 싶지만 이것이 발미가 되어 후일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 아비가일은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여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다(25:26). 즉,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디”(삼상 25:26).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나발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초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28)**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한다(25:27~31).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그러므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